

동남아시아 이슬람 테러리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lamic terrorism in the Southeast Asia: Its Evaluation and perspectives

최진태*

〈목 차〉

- | | |
|-------------------|-------------------------|
| I. 서론 | III. 동남아시아 테러리즘 전망 및 한계 |
| II. 동남아시아 테러리즘 현황 | IV. 결론 |

〈요 약〉

9.11 테러 이전에는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테러의 무풍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러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동남아시아의 테러단체와 알카에다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면서 동남아시아가 알카에다를 포함한 수많은 테러조직의 본거지로 변모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문가들 역시 동남아시아가 테러의 태동지이며, 화약고였던 중동지역에 못지않은 알카에다의 주요 활동지역이며,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원리주의 테러조직과 연계된 테러조직의 활동이 더욱 커질 것이라 지적해 왔다.

알카에다와 강한 테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제마 이슬라미야, 그리고 아부 사에프 그룹 등과 같은 테러조직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교류와 국제간의 주요 무역로인 해상 수송을 위협하는 해적행위 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테러의 중심지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테러에 대한 공포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에서의 테러리즘 확산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테러리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테러의 진원지로 등장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다.

주제어: 동남아 테러리즘, 이슬람 테러리즘, 테러 네트워크, 알카에다

*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

I. 서 론

9.11 미 테러, 3.11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그리고 7.7 런던 동시 다발 테러를 통해 테러의 심각성이 증명되고 있다. 테러 문제는 중동, 유럽, 남미 등의 문제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테러의 안전지대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동남아시아는 미국이 중심이 된 테러와의 전쟁 제2의 전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테러리스트 단체와 알카에다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동남아시아가 알카에다를 포함한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의 본거지로 변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 역시 동남아시아가 중동에 못지않은 알카에다의 주요 활동지역이며, 앞으로 동남아에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2002년 10월, 200여 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발리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는 동남아시아 테러의 심각성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알카에다의 동남아시아 영향력 확대, 제마 이슬라미아를 포함한 과격 테러조직의 등장, 그리고 해상 수송을 위협하는 해상 테러로 인해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테러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전 세계가 테러에 대한 공포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에서의 테러리즘 확산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동남아에 진출하는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의 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지역을 찾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테러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테러의 지원지로 등장할 가능성을 최근 전 세계적인 테러 현상과의 연관성을 통해 제시하는 데 있다.

II. 동남아시아 테러리즘 현황

1. 테러의 본질과 발전

1) 테러의 배경

동남아시아에서의 테러는 1950년대부터 분리 독립주의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고, 미소 냉전시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좌익이나 반정부 테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최대의 현안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이슬람 테러문제는 90년대 중후반부터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분리 독립주의 테러는 제국주의가 끝나던 무렵인 1950년대 열강의 지배로부터의 동남아시아 독립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분리 독립주의 테러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를 상대로 분리 독립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는 타밀 타이거즈 해방운동(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아체 자유운동(GAM) 그리고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로 민족해방전선(MLF) 등이 대표적인 분리주의 테러조직이다. 이외에도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 등지에서 분리 독립주의 테러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미소 냉전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테러리즘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던 시기에 동남아시아에도 역시 좌익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조직은 대부분 1960~80년대에 창설되었는데, 필리핀의 알렉스 본카요 여단(Alex Boncayao Brigade: ABB),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NPA), 그리고 미얀마 공산당 등이 대표적이다. 냉전이 종식과 함께 상당수의 좌익 테러리스트 단체가 괴멸되거나 힘을 잃었지만 필리핀의 ABB와 NPA같은 경우 냉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필리핀 내에서 좌익 혁명을 주장하며 반정부, 반미 테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북부 타이국경의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하는 좌익 게릴라 인디아-모택동주의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Maoist: CPM) 역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정치 환경,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이념투쟁이 현재까지 여러 국가에서 반정부 테러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구 남베트남 정권의 전통을 이어받은 반공지하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Khmer Rouge)는 과거 폴 포트(Pol Pot) 파로 서부 타이 국경을 중심으로 미비하기는 하지만 게릴라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독재정권에 대항한 반독재 게릴라 조직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테러리즘의 등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건 1990년대 초중반이다. 이 지역의 이슬람 테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간 이슬람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이슬람 테러리즘을 주도하는 테러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아 그리고 아부 사예프 그룹(Abu Sayyaf Group: ASG) 등은 거의 1990년대 중반에 창설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중동에서 동남아로 진출한 테러조직 조직인 알카에다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일반적인 이슬람의 정서를 이용, 이슬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상호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2) 테러 환경

동남아시아는 테러범의 활동을 촉발시키는 인종적 그리고 자연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동남아시아가 중동에 못지않은 막강한 이슬람권 지역이라는 것이다. 동남아 지역에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약 1억 7000만(전체인구의 85%), 말레이시아에 1000만, 필리핀 남부에 400만, 태국남부에 330만, 싱가포르에 50만, 브루나이 25만 등을 포함하여 대략 1억 9000만 명(동남아 총인구 5억)의 이슬람교도들이 거주하고 있다.(배궁찬, 2002) 이는 이슬람 테러조직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알카에다와 같은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테러조직도 종교적 유대를 바탕으로 쉽게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동지애가 테러범뿐 아닌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어 테러범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활동할 수 있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자연적 환경이 테러조직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글처럼 우거진 숲은 테러범들의 은신처와 훈련소로서 전혀 손색이 없으며, 테러조직이 게릴라전이나 소규모 국지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진 수천 개의 섬과 이들이 형성하는 미로 같은 해로(海路)는 해적활동, 해상 테러를 자행하거나 마약과 무기 등 불법 물품을 은밀히 수송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셋째, 동남아 지역은 국경지역에 대한 방비가 허술하고 비자 발급 시에도 최소한의 사항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테러범들의 입출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9.11 테러 보고서’에는 테러범들이 얼마나 쉽게 동남아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모임을 갖고 테러 계획을 모의했는지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대부분의 테러조직은 깊은 숲 속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동남아시아가 최악의 해상 테러 위험지역이라는 사실을 봐도 동남아시아 테러조직이 자연환경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해상은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은 전 세계 원유공급선의 50%, 동아시아지역으로 공급되는 원유, LPG, 그리고 LNG의 90%가 통과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테러가 발생해 수송로가 봉쇄될 경우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서울신문; 2004.10.15) 동남아시아 해상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경제적 환경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최소의 공격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표적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0년대에 이르러 동남아시아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통제가 완화되고, 동남아 역내 국가들 간 자유무역지대가 결성되어 테러조직의 활동이 용이해졌다. 동남아 테러조직이 마약 및 무기밀매, 인신매매, 돈세탁 등을 일삼는 국제적 조직범죄와의

연계를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테러에 필요한 무기 및 폭발물을 확보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해진 것이다.(배공찬; 2002)

2. 이슬람 테러의 본질과 발전

1) 이슬람 테러의 배경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대두된 배경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 정치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정치·사회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국가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을 첫 번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당시 금융위기로 동남아시아 경제가 붕괴되자, 동남아 국가 대부분에 경제 불황과 빈부 격차의 심화,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은 치안상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세속정권에 대한 분노와 테러 활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현상은 세계화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전 세계 이슬람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계화로 인한 서구문화와 해외자본의 유입에 동남아시아 이슬람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전통적인 이슬람식 문화와 생활방식으로의 회귀와 반세계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었다.(Mark Manyin, et al; 2004)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 군부, 독재정권의 붕괴이다. 동남아의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보다 세속성이 강하며 정치나 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이는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한 군부, 독재정권 때문이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붕괴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단체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 체제 붕괴 이후 많은 이슬람 단체들이 정치 정당으로 탈바꿈했고, 현재의 와히드대통령은 세계최대의 이슬람 단체에서 정당으로 전환된 국민각성당의 대표이다.(주간한국; 2001.10.16)

네 번째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다.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슬람 주민들을 중심으로 연일 대규모 반미시위가 일어났다. 또한 수많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시위를 주도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면서 동남아의 대표적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대테러 전쟁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으나 이슬람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위로 체제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자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반대를 표명했다.

2) 이슬람 테러 네트워크

9.11 미 테러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난 특징은 이슬람 테러리즘의 확산과 함께 테

러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모든 이슬람 테러조직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리 독립주의 테러리즘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리스트 단체의 협력관계는 전략적 협력, 연합훈련, 무기밀매, 피난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 단체 J와 GAM이 남부 필리핀에 위치한 MILF의 캠프에서 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GAM은 태국의 불법조직과 무기 밀거래를 하고 있고, 테러조직이 동남아의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현지 테러조직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테러리스트들이 상호협력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1980년대 후반 리비아에서 시작되었다. 리비아는 테러 지원국으로서 중동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등 여러 테러리스트 단체를 지원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였다. 리비아는 동남아시아 테러리스트 단체의 훈련과 재정지원에 관여했는데,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GAM 소속 5,000여명의 조직원들이 리비아의 테러캠프에서 훈련을 받았다.(<http://www.inni-mission.pe.kr/aceh01.htm>) 리비아는 또한 선행 작전에 참가하여 체포된 후 수감 생활을 하는 테러범들에 대한 지원과 가족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란 명목 하에 ASG를 포함한 필리핀 내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였다.

동남아시아 테러리즘 네트워크의 기원은 이슬람 테러리즘의 부흥을 목적으로 한 이슬람 테러리즘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동남아시아 테러리즘 네트워크 형성의 배경은 바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형성된 무자헤딘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소련의 침공에 분개한 전 세계 이슬람 청년들이 무자헤딘이 되기 위해 아프간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이슬람 인구가 1억 9,000만에 달하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무자헤딘으로서 싸우는 동안 형성된 광대한 네트워크는 소련이 아프간에서 떠나면서 더욱 굳건해졌고, 종전 후 고국으로 귀환한 무자헤딘이 분리 독립 투쟁이나 이슬람 테러리즘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지 테러리스트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다.(Dana R. Dillon; 2004) 아프간에 이어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성전은 인도네시아 몰루카 제도의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이었다. 1999년 폭발한 종교 갈등으로 인한 유혈충돌 때문에 2003년 협정으로 분쟁이 진정될 때까지 5,000명이상이 사망하고 35,000명이 실종되었다. 몰루카 분쟁은 아프간 때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테러리스트 단체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분쟁에 J, KMM 등 여러 테러리스트 단체가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테러조직의 본격적인 네트워크화는 1990년대 초중반 알카에다와 이슬람 전선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알카에다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 테러리즘의 확산을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고 동남아시아 역시 알카에다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사

실 알카에다와 이슬람 테러리즘 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를 이슬람 성전의 제2의 전선으로 염두 해두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다수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북부의 소수 이슬람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들 수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이슬람 전선은 필리핀에서 북부의 소수 이슬람들이 기독교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International Review; 2002)

알카에다와 동남아시아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와의 관계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는데, 2000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알카에다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여기에 인도네시아 테러조직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의 지도자 함발리(Hambali)가 참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Yeo Weimeng; 2005) 1999년 말레이시아의 국제 이슬람 대학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이자 테러리스트 단체 JI의 정신적 지도자라 불리는 아부 바카르 바시르(Abu Bakar Bashir)의 주최로 무자헤딘 연합(Mujahidin Coalition) 회의가 열렸다. 이 모임에는 JI와 MILF 뿐 아니라 여러 테러리스트 단체의 수뇌부들이 모였다. 무자헤딘 연합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테러리스트 단체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며, 최소 3번 이상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Yeo Weimeng; 2005)

3) 알카에다 진출 배경과 역할

알카에다와 동남아시아 테러조직 간의 관계는 2001년 12월 싱가포르에서 15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체포된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가 중동에 못지않은 알카에다의 주요 활동지역이며,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더욱 커질 것 이라 지적한 바도 있다.(뉴스위크; 2001.10.03) 이는 2002년 10월 발리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함으로써 현실로 나타났다. 사실 알카에다와 이슬람 테러리즘 네트워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를 이슬람 성전의 제2의 전선으로 염두 해두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알카에다는 주요 이슬람 지역에 요원을 파견하고 현지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등 이슬람 테러리즘 네트워크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 역시 이런 지역들 중 하나였으며 알카에다는 동남아시아에서 3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첫 번째 임무는 알카에다의 세포조직을 심어놓는 것이었다. 이 세포조직들은 동남아시아 인이 아닌 중동 쪽의 알카에다 조직원이었으며, 이들의 임무는 동남아시아의 느슨한 국경경계를 활용하여 동남아시아에서의 서구 목표물에 대한 공격계획을 수립, 조사하는 일과 미국의 추적을 피해 동남아시아로 피신한 동료들의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오사마 빈 라덴은 1994년부터 필리핀 내의 테러리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감독하기 시작했다. 1990년 대 초반에 라덴의 처남에 의해 조직된 알카에다의 마닐라 세포는 서구 목표물에 대한 거대한 테러계획을 수립했다.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테러 사건의

주범 람지 유세프가 지휘했던 마닐라 세포는 필리핀 북부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 단체인 아부 사에프 그룹과 협력하여 미국과 서방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테러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보진카 작전(Operation Bojinka)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크게 2개의 작전으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미국 국적의 항공기 11대의 폭파작전과 로마 교황 요한 바올로 2세의 암살 작전이었다. 보진카 작전은 테러리스트들이 은거하던 아파트에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경찰에 포착되어 수포로 돌아갔으며, 알카에다의 필리핀 세포들도 붕괴되었지만, 보진카 작전은 알카에다가 필리핀을 적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점과 이 작전이 9.11작전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임무는 동남아시아 현지 테러리스트 단체를 도와 공동의 적인 서구에 대한 테러공격을 계획하고 자행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테러리스트 단체들 중 특히 II는 알카에다와 깊은 협력관계에 있으며, 알카에다에게 자금지원, 훈련 등 여러 도움을 받고 있다. II는 2002년 200명이상이 사망한 발리 폭탄테러와 2003년 자카르타 메리어트 호텔 폭탄테러사건 등 과격한 테러로 동남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 단체로 불리고 있다. 필리핀의 ASG역시 알카에다와 연계되어있으며, 이 조직은 1990년대 초 조직이 새로 창설되었을 때 알카에다의 큰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알카에다에게 오랫동안 자금을 지원받았고, 마닐라 세포의 보진카 작전에 협력했다. 보진카 작전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들은 자신들의 소행이라 대신 주장하기도 하였다.(요제프 보단스키; 2001) 세 번째는 알카에다의 지역 세포가 현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와 결합하여 알카에다는 돈과 훈련을 제공해주고, 테러리스트 단체는 그것을 기반으로 이슬람 테러리즘 혁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었다. 알카에다의 1990년대 중반 필리핀 경찰에 의해 와해될 때 까지 마닐라 세포는 ASG와 MILF, 그리고 여러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수천 명의 동남아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알카에다 훈련캠프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테러리스트들은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소속이었다. 알카에다는 훈련과 재정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움을 이러한 동남아시아 테러리스트 단체에게 주었다.

1990년대 후반 동남아시아에서의 알카에다 활동 영역은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알카에다는 이시기 인도네시아, 말루쿠의 기독교 이슬람 분쟁에 개입하여 무자헤딘을 투입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 쿠알라룸푸르와 방콕에서 알카에다가 수행할 거대한 테러작전을 모의하였다. 이 모의에는 2000년 콜(Cole)호 자살공격사건과 9.11테러사건의 세부적인 작전사항이 구상되었다. 또한 알카에다는 동남아시아의 허술한 재정 감시를 이용하여 자금을 모으고, 이동시키고, 이를 세탁하여 조직의 재정운용에 동남아시아를 활용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알카에다에게 있어 동남아시아는 다시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부상하였는데, 실제 2002년까지 알카에다는 조직 활동의 1/5를 동남아시아에 투입할 정도로 동남아시아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2001년 12월 싱가포르에서 15명의 알카에다 대원들이 체포되었고 2002년에는 발리에서 거대한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동남아시아 이슬람 테러리즘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4) 제마 이슬라미야와 알카에다의 연계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ah: JI)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세포조직을 가진 이슬람 극단주의자 집단이다. 최근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체포된 JI의 조직원들은 알카에다와 연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JI의 명시적인 목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남부 필리핀에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3명의 인도네시아인 극단주의자들이 조직의 리더들로 알려지고 있다. JI는 아시아 지역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빈번한 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JI는 1993년에 창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실체는 2000년대 초반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JI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2002년 발리 테러 이후 JI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과격한 테러리스트 단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JI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알카에다와의 관계 때문인데, 동남아시아 내 이슬람 국가 건설과 동남아 전 지역에 세포조직을 두는 전술방식, 과격하고 잔인한 테러방법, 동남아시아 테러리스트 단체의 네트워크화를 주도하고 있는 등 여러모로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단체인 알카에다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JI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 카에다의 목적과 부합한다. 또한 JI의 세포조직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그리고 파키스탄 까지 동남아시아 전역에 조직망이 형성되어있다. 이를 위해 JI는 여러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와 훈련, 재정지원, 군사전략, 합동작전 등을 함께 하는 동맹관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특히 필리핀의 MILF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데, MILF가 활동하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역에 JI의 캠프가 가동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리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했다.(Andrew Tan; 2002)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JI의 정신적 지도자 아부 바카르 바시르는 최소 3번 이상 무자헤딘 연합이라는 회의를 열어 동남아시아 테러리스트 단체들의 결속력을 다졌다. 이 모임에는 JI와 MILF 뿐 아니라 여러 테러리스트 단체의 수뇌부들이 모였다.

JI는 과격한 테러방식 역시 알 카에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알 카에다의 전술적 특징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산발적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 세포조직을 침투시켜 치밀하게 작전을 구상한 뒤 다량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거대한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것이다. JI의 테러행위는 2002년 발리 폭탄테러 이후 현재 까지 보고 된 바는

단 3건 뿐이지만 차량폭탄을 이용한 과격한 테러행위로 부상자가 540명에 사망자는 227명에 달한다. J와 알카에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초기 많은 전문가들은 J가 알 카에다의 동남아시아 조직이나 하부 조직 정도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수많은 J 대원들이 체포되고 조직의 전모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J는 알 카에다의 하부조직이 아닌 조직원과 작전, 재정적 관계가 긴밀히 연결된 별개의 협력조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알카에다는 조직의 목적과 활동이 좀 더 국제적이고 목표물이 서구사회 전체임인 반면 J는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시아로 집중, 한정되어 있다.(Mark Manyin; 2004) 알카에다와 J는 여러 부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의 민다나오에 위치한 테러리스트 훈련캠프에서 합동훈련을 했으며, 알카에다는 J에게 재정지원을 했다.

이 두 단체는 합동작전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알카에다가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맡고 제마 이슬라미아는 조직원과 테러에 필요한 폭약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9.11과 콜(Cole)호 테러작전의 논의가 2000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 J의 지도자 리두안 이사무딘(Riduan Isamuddin:함발리)이 참석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J 세포조직은 9·11 테러 용의자인 자카리아스 무사위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국민일보, 2002.10.17) 또한 2003년 8월 인도네시아 메리어트 호텔 폭탄에서 경찰은 사용되었던 폭탄에 발리테러사건 때와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발리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 테러조직 ‘제마 이슬라미아(JI)’의 조직원들을 체포하면서 J가 메리어트 호텔 주위를 공격 목표로 기술한 문건들을 입수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조선닷컴 2003.08.06) 그러나 사건 직후 알카에다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했다.(CNN.com 2004.02.26)

III. 동남아시아 테러리즘 전망 및 한계

1. 일반 테러 전망

동남아시아는 테러리즘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테러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까지 동남아시아는 테러리즘으로 주목받은 적이 별로 없으며, 지금처럼 테러리즘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다. 물론 분리 독립주의와 좌익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타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테러의 안전지역으로 인식되어왔다. 실제 1968년부터 1999년까지 중동지역에 2259건, 서유럽에 3188건의 테러리즘이 발생하는데 비해 동남아시아는

352건의 테러리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테러리즘이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반(反)체제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군부통치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강력한 사회통제가 가능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어 온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90년대 동남아시아에서 테러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았던 것은 국제적으로 냉전 종식이라는 환경 속에서 좌익(Left-Wing) 테러리스트 단체의 약화와 국내적으로는 90년대 중반까지 동남아 국가들이 이룩했던 고도경제성장, 필리핀 정부와 모로 국립 해방 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MNLF)과의 평화협정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표 3-1〉 지역별 테러 발생 현황(1968-1999)

지역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아프리카	815	7567	2258
동중 아시아	156	5465	184
동유럽	524	1190	540
남미 & 카리브 해	2156	1529	897
중동/페르시아 만	2259	9329	3054
북미	483	1953	577
남아시아	532	7617	2051
동남아시아	352	630	440
서유럽	3188	4096	1100
합계	10465	39376	11101

자료출처: MIPT Terrorism Knowledge Base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 테러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95년까지 점차 감소하던 테러리즘 발생건수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8년부터 1999년까지 30여년에 걸쳐 352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무려 1,401건이 발생하여, 거의 400 퍼센트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통계 수치는 전 세계 어떤 지역보다 동남아 지역이 테러 발생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표 3-2〉 동남아시아 테러 현황(2000-2006)

연도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2000	73	603	87
2001	139	548	179
2002	121	996	368
2003	31	394	73
2004	220	582	278
2005	426	953	240
2006	391	677	264
Total	1,401	4,753	1,489

자료출처: MIPT Terrorism Knowledge Base

2000년 이전에는 매년 테러 발생건수가 1998년(31건)과 1999년(30건)을 제외하고는 10여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에 73건이 발생한 이후 2001년과 2002년에는 100건 이상이 발생했고, 2004년에는 200건을 넘어섰으며, 2005년에는 무려 426건이 발생했다. 테러 발생건수의 증가로 인해 1968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부상자 수가 630명인데 비해 2000년 이후 무려 4,753명이나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도 1,48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특히 크게 늘어난 것은 이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 조직의 공격 전술이 2000년대 이전보다 훨씬 과격하고, 잔인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에서 1990년 후반부터 테러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핵심적인 원인에는 필리핀 남부, 인도네시아의 분리 독립 세력의 분쟁격화와 이슬람 테러리즘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이시기 동남아시아에서의 테러리즘은 거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리 독립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의 소행이었다. 분리 독립주의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아체해방운동(Gerakin Aceh Merdeka: GAM), 필리핀의 모로 이슬람 해방운동(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의 과격 테러활동이 급증했는데, 이는 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폭동과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상결렬, 필리핀에서는 98년 MILF의 재편성과 99년 NPA와 필리핀 정부 간의 협상결렬이 테러 격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http://www.kida.re.kr/woww>) 이슬람 테러리즘은 90년대 중후반부터 동남아시아에서 크게 증가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90년대 초중반에 창설되었던 ASG가 중후반에 들어 과격한 테러 활동을 늘어갔으며, 2002년에는 200명 이상이 사망한 발리 폭탄테러가 발생하면서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 단체 제마 이슬라미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와 정통 이슬람 건설, 반기독교 성향이 대두되면서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인도네시아 동부 말루쿠에서 기독교와 이슬람 주민간의 유혈 충돌이 커지면서 반기독교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http://www.donga.com> 2004.04.28)

2003년에 동남아시아 테러리즘은 그 전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1년 6월 필리핀 정부와 MILF와의 휴전협정 조인과 2002년 인도네시아 아체주가 특별자치구로 승격되고, 동년 5월 인도네시아 군과 GAM의 휴전합의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 테러 발생의 한계

1) 이슬람 테러의 한계

9.11테러 이후 동남아시아는 이슬람 테러리즘 제 2의 전선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중동 못지않게 이슬람 테러리즘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 주장

했다. 그러나 2002년 후반 발리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ASG를 제외하고는 J나 KMM과 같은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의 테러 활동은 대체로 실패하거나 사전에 저지당하였다. 그 외 인도네시아에서 고작 소규모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의 미미한 테러활동이 있었을 뿐이었다.(John Gershman; 2002: 60-74)

발리 테러가 발생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슬람 테러리즘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엄밀히 말하여 이는 이슬람 테러리즘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 몇몇 단체에 의해 과격화되고 심화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현재 이슬람 테러리즘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미국 무부 지정 테러리스트 단체 명단에 올라와있는 필리핀의 ASG,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단체 J 정도이며, 그 외에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부를 있을 정도의 조직은 KMM, 알 마우나 그룹, 지하드 갱이 있으나, 조직도 소규모이고 그 활동도 미약하다. 그나마 상당수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상태이다.(문광진; 2002: 211)

앞서 밝혔듯이 동남아시아 테러리즘 환경은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가 탄생하고 서식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동남아시아 내 이슬람 테러리즘이 예측했던 것 보다 확산되지 못한 데에는 동남아시아가 테러리즘 제 2의 전선으로서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 때문이다. 먼저 동남아시아에서는 중동지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국가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없었다. 중동지역의 알카에다나 여러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는 여러 이슬람 국가, 대표적으로 이란과 아프간, 예멘,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보다는 세속성이 강하며 국가에서 는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였다.(<http://jkim.mireene.com/bbs/zboard.php?id=favorites&no=87>)

그리고 이들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가 활동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이 민주주의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계 이슬람은 중동보다 덜 호전적이다. 이는 아시아의 상대적인 경제적 성공, 보다 개방적인 시민사회, 덜 억압적인 정권, 그리고 이슬람 이전의 내재적인 전통 등이 호전성에 대한 저항을 설명할 수 있다.(문광진;2002: 207) 이들은 불만을 폭력적 테러리즘으로 표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후 동남아시아 이슬람 주민들을 중심으로 연일 대규모 반미시위가 일어났다. 또한 수많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시위를 주도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테러리즘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2002년에는 오히려 전체 테러발생건수가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주민들은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를 쉽게 받아들일 만큼 종교적이지 못하다. 동남아시아 민주화와 미국의 아프간 전쟁으로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이슬람 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정당이 급속도로 성장

했다. 그러나 이슬람 정당이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채택한 정당을 내세우자 주민들은 이슬람 정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2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정당 복지 정의당과 통일개방당은 인도네시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제안했었으나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두 정당은 샤리아를 정강에서 제외하고 부패와 경제문제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의 범 말레이시아 이슬람 정당(PAS) 역시 샤리아 채택을 지지하자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결국 27개 의석 중 20석을 잃고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다.(뉴스위크 한국판 2004.04.07) 이는 명백히 동남아시아 주민들이 보수적 이슬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분리주의 테러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현재 동남아에서의 이슬람 테러리즘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래 동남아시아 테러리즘에 있어 이슬람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9.11 이후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슬람 테러리즘 확산은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던 기존 테러리스트 단체와 알카에다의 협력관계가 확인되자 사실로 드러나는 듯 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분리 독립주의 테러리즘이며, 동남아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는 대체로 분리 독립주의와 연계되어있다. 흔히 이슬람 테러리즘과 분리 독립주의 테러리즘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그보다는 분리 독립이나 좌익이나 반정부 같은 좀 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분명 이슬람 색채를 띄고 있더라도 이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분리 독립주의이며, 우려하는 만큼 이슬람 원리주의에 매달리지도 않는다. 이는 동남아시아 이슬람 테러리즘의 한계를 명백히 나타내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에서 볼 수 있는 유연함을 찾을 수가 없다. 테러리스트들은 “어떻게 하면 적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원의 적을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적에게 더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는지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적에 대해서도 결국 타협해야할 대상이 아닌 완전히 차단하고 추방해야할 이슬람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에게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테러리즘이 아닌 전쟁행위이며 어떤 협상도 타협도 대화도 없는 ‘오직 지하드’인 것이다.

그러나 보통 전통적인 테러리스트는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의 입장 역시 고려할 줄이는데, 간혹 무차별적이고 파괴적인 테러리즘이 있기도 했으나, 테러리스트들은 적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략에 따라 공격의 강약을 조절했다. 이런 유연함은 어쨌든 적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적당히 대응해주기만 한다면 테러리즘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분리주의 테러리스트 단체는 이슬람 원리주의가 목적이 아

년 말 그대로 분리주의가 목적이며, 이는 타협을 불허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와는 달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떻게든 정치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GAM과 MILF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들은 분리 독립주의 테러리스트 단체로 미 국무부 지정 외국 테러리스트 단체 명단에도 올라와있지 않다.(Dana R. Dillon;2004) 흔히 GAM과 MILF를 ASG나 제마 이슬라미아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의 범주 안에 넣는 경우가 있다. 분명 GAM과 MILF가 이슬람 성향을 보이는 테러리스트 단체이며, 또한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 GAM과 MILF의 극렬한 투쟁 과격화는 이슬람 테러리즘의 유입이 아닌 정부와의 갈등이 원인이었으므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내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ABC News Online 2005.01.11)

실제 2003년 미국의 대 테러 전쟁으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는 반미성향이 극에 달해 있었으나 동남아시아 내 테러사건 발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2001년 6월 필리핀 정부와 MILF와의 휴전협정 조인과 2002년 인도네시아 아체주가 특별자치구로 승격되고 동년 5월 인도네시아 군과 GAM의 휴전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IV. 결 론

동남아시아는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단 세계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 지역에는 총 2억에 달하는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으며, 숲이 우거지고 수천 개의 섬이 널려있는 자연환경은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와 훈련소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테러는 1990년대 중반까지 테러에 시달리던 중동이나 서유럽에 비해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스리랑카의 LTTE와 같은 분리주의 테러 조직이나 해적, 범죄조직 같은 단체들의 과격한 폭력행위가 문제되었던 적이 있으나, 1990년대 중반까지 동남아시아의 테러리즘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문광전; 2002: 205)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동남아시아 테러는 분리주의 테러리즘의 격화와 이슬람 테러리즘의 유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동남아시아를 대테러 전쟁 제 2의 전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테러리즘의 등장은 당연히 알카에다를 상대하고 있는 미국과 이슬람 테러리즘의 부흥을 우려한 전 세계를 긴장하게 했다. 이러한 우려를 사실로 입증이라도 하듯이 2000년 알카에다가 동남아시아에서 현지 테러리스트 단체 J와 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2001년 12월 싱가포르에서 15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서 거대한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2003년 동남아시아에서 테러리즘이 다시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2001년 6월 필리핀 정부와 MILF와의 휴전협정 조인, 2002년 인도네시아 아체 주의 특별자치구 승인, 그리고 2001년 5월 인도네시아 군과 GAM의 휴전합의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말루쿠의 이슬람과 기독교간의 유혈충돌이 줄어들었으며, 2004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의 패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슬람 테러의 한계를 증명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테러리즘의 확산이 부딪힌 한계는 동남아시아는 이슬람 테러 확산에 필요한 환경이 양호하지만 이슬람원리주의를 표방하는 테러조직이 이슬람 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슬람을 신봉하는 테러리스트 단체라 할지라도 분리 독립주의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테러리즘은 정치적으로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 테러리즘 확산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타협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 발생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 고 문 헌

- 문광건 외(2002). 『뉴테러리즘의 오늘과 내일』, 서울: 국방연구원
- 배궁찬(2002). 『동남아 테러문제와 역내 전략 환경의 변화』,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 요제프 보단스키 저, 최윤자, 이운섭 공역 『오사마 빈 라덴』 (서울: 도서출판 명상,2001)
-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 _____(2006).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 서울: 대영문화사
- _____(2006). “국제 테러조직의 현황, 전략 및 전술”. 『군사저널』, 1월호
- _____(2005). “테러의 시대, 한국은 안전한가?”. 『위험관리』, 가을호
- _____(2004). “테러와 위험관리: 국제 테러의 발생현황과 추세”. 『위험관리』, 가을호
- _____(1997).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 Banlaoi, Rommel C.(2004). War on Terrorism in Southeast Asia, Manila, Philippines: Rex Book Store
- Banlaoi, Rommel C.(2002). “The Role of Philippine-American Relations in the Global Campaign against Terrorism: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Comtemporary Southeast Asia, Vol.24, No. 2: 367-426.
- Banlaoi, Rommel C.(2002). “Global Security Issues and Concerns after 9.11: Threats and Opportunity for the Philippines,” Strategic and Integrate Studies Center Occasional Paper
- Bonner, Raymond, (2002). “Southeast Asia Remains Fertile for Al Qaeda,” The New York Times
- Gunaratna, Rohan(2002). Inside Al-Qaeda: Global Network of Terro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ssan, Mohammed Jawhar(2002). “Terrorism: Southeast Asia’s Response,” PacNet Newsletter: 4-8
-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2004). The 9/11 Commission Report: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 Mark Manyin, Emma chanlett-Avery, Richard Cronon, Larry Niksch, Bruce Vaughn.(2004) “Terrorism in Southeast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 Dana R. Dillon(2004). “Southeast Asia and the Brotherhood of Terrorism“, the Heritage

foundation.

International Review(2002). “Bin Laden Connections To Philippine Terror Explored“

John Gershman(2002). “Is Southeast Asia the Second Front?,” Foreign Affairs, Vol. 81,
No. 4: 367-426.

Ministry of Home Affairs(2001). White Paper: The Jemaah Islamiyah Arrests and the
Threats of Terrorism, Ministry of Home Affairs, Republic of Singapore

Rolfe, Jim(2002). “Security in Southeast Asia“ It’s Not About the War on Terrorism,“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Vol.1, No.3: 23-34

Yeo Weimeng(2005). “The battle on terror’s second front“. Asia Times Online

Andrew Tan(2003). “The Threat of Terrorism in Southeast Asia: Threat and Responses“
Council of Asian Liberals and Democrats

ABSTRACT

A Study on the Islamic Terrorism in the Southeast Asia: Its Evaluation and Perspectives

Choi, Jin-Tai

In the post-Cold war world, the threat of terrorism is emerging as the most formidable challenge. The terrorist attacks including 9.11 World Trade Center attack have proved such challenge. It has become apparent that no country is safe from the scourge of terrorism. The region of the southeast Asia is no exception to this trend. The Bali bombing of 2002, killing about 200 innocent people, demonstrated that the threat environment had significantly altered. Today, local and regional groups such as Jemiah Islamiah can conduct terrorist operations as devastating as those carried out by Al Qaeda.

As fighting terrorism is a complex multi-dimensional task, the responsibility for fighting terrorism must not rest with a single government. The burden must be shared by both the loc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In addition, To prevent another bombing of the scale of Bali, countries in the region of southeast Asia must respond decis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n terrorism in the southeast Asia and to provide perspectives on future terrorism in this region. To foster the better understanding, historical survey on the terrorism in the region and local terrorist groups' network with the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including Al Qaeda have been research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is paper provides a perspectives and evaluation on the future terrorism in the southeast Asia. It also provides an implications for our reference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Key word: Terrorist Attacks in the Southeast Asia, Al Qaeda, Islamic Terrorism, Terrorism Network